

“안전”은 “공영”을 이룩하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KTV GLOBAL CORPORATION

어느덧 2006년 한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이라는 말은 지나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미련을 느끼게 한다. 따뜻한 어머니 품속 같은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무척이나 곤욕스러운 요즘. 오늘따라 그 용기가 잘 나지 않아 10분이나 늦잠을 잤다. 싸늘한 바람에 온몸이 굼벵이 마냥 움츠려 든다. 하얀 입김이 유난히 짙게 보이던 어느 날, 대구에 있는 KTV GLOBAL을 가기 위해 열차에 올랐다.

■ 전 세계 69개국에 수출하는 KTV GLOBAL...

(주)KTV GLOBAL은 영상기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완성품 제조 메이커이다. 가전제품인 TV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 그것은 생산된 모든 제품이 100% 해외로 수출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TV의 탄생은 1969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자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TOSHIBA와 기술제휴를 통해 “한국TOSHIBA”를 설립하고, 국내 최초로 브라운관 TV를 생산하였다. 이후 (주)KEC로 개명하고 영상기기와 함께 반도체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지만, 2003년 3월, (주)KEC의 정책 하에 영상기기 사업군을 (주)KTV GLOBAL로 분리·독립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6년 2월에는 이곳 대구 달서구에 7,000여 평 대지에 새 공장을 짓고 영상기기 월 10만대라는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차별화된 LCD TV, 평면TV, 차량용TV, 병원용TV, 특수제품 및 CCTV 모니터 등을 생산하며 2006년 무역의 날 “수출 1억불 달성탑”을 수상하기도 한 (주)KTV GLOBAL은 전 세계 69개국 123개의 비즈니스라인을 겸비한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고 있다.

■ Back to Basic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2003년 3월 (주)KTV GLOBAL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기업문화에서 탈피하고 KTV만의 기업문화를 갖고자 하는 바람이 담긴 말이다. 아울러 “공영”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노·사의 구별을 없애고, 다 같이 합심하여 “일하고 싶은 회사, 일할 맛 나는 회사”



를 만들기 위한 전사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 곧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안전한 일터의 조성”을 꾀하였다. 이곳의 이재길 이사는 안전에 있어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그는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과 행복”이며 나아가 “회사 발전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소한 방심이나 불안정한 행동,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두를 위한 공영을 실현하는 일, 바로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 전자조립업종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

이곳 KTV는 전자조립 업종이다. 흔히 단순 조립 반복 작업으로 대표되는 작업들로 근골격계질환 발생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기도 하다. KTV에서의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공정은 크게 입고 → 조립 → 포장 → 출하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전 공정을 통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중량물 들기 작업에 있다.

TV브라운관의 무게가 많게는 50kg까지 나가는 것이 있어 인력으로 작업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새

로운 공장을 설계하면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완성 SET 적재용 UP/DOWN TURN TABLE과 AIR BALANCE 장비를 각 필요한 라인에 설치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가 실제로 가하는 최대 힘은 15kg 미만이라고 한다. 또한 각 조립라인은 제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되게 설계하여 근로자가 직접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일을 최소로 줄였다.


■ 체조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 그리고 3정5S활동

KTV에서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전 사원이 모여 10분 간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고 있다. 작업장마다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들이 있는데, 바로 3정5S에 대한 표어들이다. 과거 일본에서 시작된 품질경영 기법이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스스로 3정5S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에 의한 안전이 아닌 자율적 안전으로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무재해 3배 달성, 106그루의 과실수

KTV 울타리 주변에는 나즈막한 한국 고유의 묘목수 106 그루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다. 이는 대구공장의 신축과 더불어 전 직원이 정성들여 심은 기념식수이며, 조만간 각 나무에는 직원들의 이름이 붙여질 예정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기고, 따뜻한 봄을 거쳐 무더운 여름을 나고, 가을이면 탐스러운 열매가 열릴 이 나무들처럼, 무재해 3배수 달성을 넘어 모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소중한 결실인 무재해를 이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임재근 기자〉

연관 지어 활용하고 있다. 이곳 KTV에서는 각 부서에서 14명을 선발하여 3정5S팀을 운영 중에 있다. 이들은 월, 수, 금요일에 지정된 구역을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에 따라 개선 사항들을 토의한다. 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모든 근로자가 3정5S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 매주 금요일 근로시간 중 30분을 할애하여